FX Market Daily

2026-09-23

전일동향

네고 물량 출회에...1,356.50원에 마감

22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381.00(15:30 기준)에서 7.00원 하락한 1,374.0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환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네고 물량이 출회됨에 따라 하락세 이어가며 1,356.5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21.5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60.42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74.00	1374.40	1352.90	1356.50	1360.00
엔화	872.03	873.43	859.13	860.42	-
유로화	1573.34	1575.77	1549.89	1549.89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12	-1.37	-5.06	-12.76
결제환율(수입)	0.02	-0.37	-3.2	-9.23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미-이란 협상 기대감에...1,35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2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58.20, 15:30 기준) 대비 4.70원 하락한 1,353.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와 수급 영향에 하락 전망한다. 간밤 미국과 이란의 대화 재개 소식 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이 확대됐다. 트럼프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 후 미국과 이란이 3시간에 걸쳐 만족스러운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고, 이란 측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및 항만 봉쇄 완화를 조건으로 7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. 이러한 미국과 이란의 실질적 협상 소식에 WTI 국제유가는 5일 연속 하락해 배럴당 94.95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. 이에 따라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. 또한,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매도 우위가 지속되며 원화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하락 압력 키울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전일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,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기대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47.25 ~ 1360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478.56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70원↓
	■ 美 다우지수 : 51863.69, -185.14p(-0.3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14.2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7518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